

## 학교에 있는 '보물' 관리 0점?

서울세검정초교 안 장의사지 당간지주  
낙서투성이 안내판 · 행정당국 무관심  
군산발산초교 안 발산리 5층석탑  
쓰레기 · 오물로 악취 진동, 안내판 부식  
인력 · 예산 부족 속 매뉴얼도 무용지물

### #이게 보물이었나?

잘 보호될 것으로 짐작되는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보물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도리어 '0점' 수준으로 드러났다.

보물 제235호로 지정돼 있는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 내 장의사지 당간지주, 빛이 바래고 낙서투성이인 안내판만이 이곳이 통일신라시대에 사찰 터였다는 것을 목록히 증언해 주고 있다. 운동장 한편 수풀에 파묻혀 있어 눈여겨보지 않으면 발견하기도 힘들 정도다.

군산시 발산초등학교 내 발산리 5층 석탑(보물 제276호)도 관리가 소홀하긴 마찬가지다. 안내판이 부식돼 안내문을 알아보기 힘들며 탑 주변에는 쓰레기와 오물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세검정초등학교 이신자 교장은 "귀중한 보물급 문화재가 학교 운동장에서 사장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서울시에 관리를 잘해 줄 것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박물관 등으로의 이전을 몇 번이나 건의를 해 봤지만 소용없었다"며 "보물급 문화재를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이 관

리소홀로 훼손된 당간지주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며 행정당국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군산문화원 이복용 원장은 "발산리 5층 석탑은 고려시대의 탑사 양식을 잘 나타낸 석탑으로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제대로 된 안내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훼손된 문화재 관리와 안내판 등의 개·보수 작업을 연중 실시하고는 있지만 지자체별로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워낙 많다 보니 개·보수 대상에서 누락된 곳이 있을 수 있으며, 넘쳐나는 문화재 관리 예산도 관리상 한계"라고 말했다.

### #관리소홀 정보 20건 넘어

이밖에도 당국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불교 문화재는 본지에서 조사한 것만도 약 20여건. 강화 하점면 5층 석탑(보물 제10호)은 지난해 유실로 토사가 밀려들어온 데다 탑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울어 있다. 또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국보 290



1층 기단부가 일부 탈락되고 주변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한 군산발산초등학교 내에 있는 발산리 5층석탑(사진 위). 운동장 한 켄 수풀에 가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서울 세검정 초등학교 내 장의사지 당간지주(사진 오른쪽).

호의 경우도 대웅전 배면 벽체에 낙서 및 일부 탈락 등 인위적인 훼손이 일어났고 벽체의 균열이 심하다.

### #전문화 된 관리 인력이 열쇠

이처럼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못해서다. 현재 문화재청과 지자체를 비롯해 유형문화재를 관리 및 보수하는 전문 인력은 50여 명뿐이다. 인력 확보와 더불어 △향토사학자를 비롯한 관계전문가와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문화재 관리 업무매뉴얼 준수 △행정 당국의 예산확충도 선행돼야 할 과제다.

결국 일선 시·군의 문화관광계에 문화재 담당요원이 배치된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읍·면·동 하부조직에서는 총무계에서 문화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문화재 관리가 그야말로 형식

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원을 비롯해 향토사학자들에게 문화재 관리·감독권을 부여해 문화재 담당 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재 복원과 정비는 문화재청 보수과에서 설계지침을 작성해 일괄 관리토록 돼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문위원회에 의해 간단한 조사와 진행된 뒤 외형과 규모 등이 조절되고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문화재 보수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관행이다. 때문에 실제로는 정비, 복원을 위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다. '문화재 보존 관리 업무 매뉴얼'이 무용지물의 '누명'을 벗어나 제대로 된 관리로 이뤄질 것이다.

글 · 사진=노병철 기자

### 신도시 포교 어떻게?

포교원, 10일 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은 8월 10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시 포교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2006년 제3차 포교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는 박노현 중앙승가대 강사의 '신도시 포교와 마케팅 전략' 주제발제로 시작된다. 박노현 강사는 연찬회에서 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부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조기룡 동국대 강사.

두번째 발제는 '신도시 도심포교당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이 나선다. 보림 스님은 체험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조사해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줄 계획이다. 여기에 불교신문사 주간 정산 스님이 토론자로 나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일 수안 스님 통도사 축서암



시방세계 9면 청소년연합회 농촌돕기 현장

도반의 향기 17면 송서문화마당 이교재 관장

'원칙' 안지키는 불사 4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15면 추대제? 직선제?

### 21회 불미전 대상 남진세씨 '석가모니불'



제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대상에 남진세씨의 조각 '석가모니불' (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위원장 지관)은 제2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수상작을 7월 26일 발표했다. 대상작 '석가모니불'은 회화 공예 조각부문 최우수작과 경합을 벌인 끝에 선정됐다.

제21회 불미전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완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체는 작은 정으로 터치를 하고 광배와 연화좌대 귀퉁은 도두락으로 표현한 것이 돋보였다"고 대상 선정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김지현 기자

### 불교계 대표 인터넷 언론 부타뉴스 대대적 개편



- 더 빠른 뉴스
- 영상뉴스 강화
- 편리한 검색기능
- 사찰 · 지역 · 단체 뉴스 강화

새로워진 buddhanews.com에 오세요

### '인류 공생을 향해' 불심 모은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10월 10일 개최

한중일 3국 불교교류 증진을 위한 '제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25~27일 일본 교토와 나라 일대에서 한중일 불자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대회는 10월 26일 나라 약사

사에서 열리는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시작으로 국제학술강연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인류의 공생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아래 '종교간 대화에 있어서 3국 불교의 역

할'이라는 소주제를 두어 각 나라마다 기조발제와 토론자 3명이 참여해 논의한다.

행사 후에는 나라 범불교와 동대사, 나루토 영산사 등 성지순례도 진행된다.

한국불교총연합회에서는 한국측 파견단과 참관단을 1백명 내외로 정하고 8월 3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김주원 기자 jkim@buddhania.com

## 불교평론 BUDDHIST REVIEW

현대불교가 발행하는 대중학술 계간지 <불교평론> 2006년 여름호(통권 27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불교평론>을 정기구독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 6년간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불교평론' 합본 CD를 드립니다.

### 특집

#### 제가불교를 생각한다

- 제가자는 출가자에 비해 하열한가 ..... 박경준
- 제가자의 해탈은 어디에 있는가 ..... 허우성
- 수행과 삶은 둘이 아니다 ..... 박영재
- 원불교 계가자로서의 삶과 수행의 조화 ..... 최영돈
- 이상적인 계가불교를 위한 제언 ..... 성태용

#### 기획연재 ②

- 건축에 스며든 선의 정신 ..... 김홍일

#### 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

- <불교평론> 고객센터(02)2004-8211~2로 전화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 구독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에 1만원씩 이체됩니다.

#### 자료발굴

백제 성왕의 일본왕 견임과 불교 포교 ..... 홍윤기

#### 논단

- 진각국사 무의자 선시의 미학 ..... 학해 스님
- 불교출판의 현황과 과제 ..... 홍사성
- 호탄불교, 접근을 위한 첫걸음 ..... 한지연
- 섬 같은 불교, 피자 같은 불교 ..... 이민동

#### 강연중계

불교와 그리스도교, 그 소통을 말하다 ..... 서명원

#### 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

- 1년을 구독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하시는 방법
- 계좌 은행(입금후 전화 확인 하셔야 합니다)
- 국민은행 : 038-25-0008-365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